

김정은 시기 도시건설 담론으로 본 북한의 통치전략*

박소혜**

- I. 서론
- II. 김정은 시대 도시건설 구상과 국가목표
- III. 도시건설 담론에 나타난 북한의 통치전략
- IV.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도시건설 담론의 전개를 통해 북한의 통치전략을 살펴보았다. 김정은 시대 도시건설은 '사회주의강국'과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이라는 국가 목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담론을 형성하며 구체적인 실체로 구성되었다.

김정은 시대의 도시건설 담론으로 본 통치전략의 특징은 '과학, 미래, 환경' 등 3가지 핵심 키워드로 요약된다. 첫째, '과학기술'을 강조하여 '자력갱생'과 '전민과 학기술인재화'라는 구호를 통치에 활용하였다. 둘째, '미래'를 내세워 '문명화된 시간'을 '속도'를 내서 따라잡아야 하는 것으로 의미화하였으며, 청년과 지도자 자체를 '미래'로 상징화하였다. 셋째, 미학과 국제적 위상의

의미를 담은 '환경'은 '문명강국'을 구체화한 시각화 전략 담론이 되었다.

김정은 시대는 선대 수령의 건설 담론을 이어받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새로운 주체 100년대', '새로운 평양 속도', '새로운 대건설시대' 등과 같이 '새로운'이라는 수식어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향한 건설 담론을 전개하며 김정은 정권의 차별화된 통치전략들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주제어: 김정은, 평양건설, 통치전략, 사회주의강국, 사회주의문명국, 우리식 사회주의

* 이 논문은 통일연구원 '2022 북한도시포럼'에서 발표한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의 도시건설 담론"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국회도서관 비서관, 북한학 박사

I. 서론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도시건설 담론의 전개를 통해 북한의 통치전략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북한 문헌에서 도시건설을 어떤 표현으로 어떻게 의미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김정은 시대 통치이념과의 관계를 통해 통치전략을 분석한다.

김정은 시대 특징 중 하나는 평양의 풍경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 8차 당대회에서는 평양 5만세대 살림집건설 계획을 선언하며 수도 평양의 도시구획을 동서 방향과 북쪽으로 확장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건설은 시대가 도달한 정신적높이와 국력의 집합체이며 문명과 발전에로의 큰걸음”이라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는 건설정책과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내세웠다.¹ “국가의 존엄과 위상은 말과 글로써는 다 떨어져질 수 없다”라며 강조하는 구체적인 성과물이 바로 건설이다.²

시대의 이념을 드러내는 물리적 실체로서 도시건설은 구호와 상징을 통해 인민을 동원한다. 평양 화성지구 건설에서는 ‘화성속도, 화성신화’가 새로운 경제구호로 떠올랐고,³ 송화거리는 ‘전면적발전의 새시대 상징의 첫 실체’로 의미가 부여되었다. 그러면서 수도 평양의 모습은 김정은 시대를 나타내는 ‘인민사랑의 기념비’로 변모될 것으로 전망했다.⁴ 김일성의 흔적이 있던 평양 경루동에는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를 만들어 인민에게 배정하며 ‘우리식 문명의 창조물’임을 강조했다.⁵ 선대 지도자를 상징하는 터전 위에 현 지도자의 업적을 엮은 셈이다.

즉 건설은 지도자의 통치와 직결된다. 평양 송화거리와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준공식이 태양절을 앞둔 4월 12일과 14일에 준공되는 등 수많은 건설사업이 태양

¹ 김정은, “5만세대 살림집건설로 우리 수도를 다시한번 웅장하게 변모시키자: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2021.3.23.)”, 『로동신문』, 2021.3.24.

² 박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고귀한 가르치심, 창조물의 탄생은 지혜와 노력이 압축된것만큼 세상을 놀래우고 시대를 전진시키게 된다.” 『로동신문』, 2023.3.12.

³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시어 뜻깊은 연설을 하시었다.” 『로동신문』, 2022.2.13.

⁴ “우리식 사회주의문명부흥의 새 전기를 펼친 인민사랑의 기념비, 송화거리 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테프를 끊으시었다.” 『로동신문』, 2022.4.12.

⁵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과 주체건축의 비약적발전상이 응축된 평양의 새 경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준공식에 참석하시어 준공테프를 끊으시었다.” 『로동신문』, 2022.4.14.

절이나 당창건일 등 북한의 주요 기념일을 기한으로 하거나 준공일로 한다는 점 역시 건설과 통치의 직접적 연결을 보여준다.

김정은 시대의 근본이념이자 정치의 본질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사상으로 전개가 되는데, 건축에서도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이라는 용어가 2013년 김정은의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서한에서 등장한다.⁶ ‘인민대중제일주의’는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사상으로 공식화되고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다시 한번 사상과 정치로 전면 부각되었다. 이에 비해 ‘건축’이 인민대중제일주의와 결합한 것은 김정은 집권 초반으로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인데, 그만큼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가시적 성과화하는 데 있어 ‘건축’이 중요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 이념이 구현된 기념비적 창조물로 정권 초기 인민야외빙상장, 류경원, 롤러스케이트장과 같은 인민들의 문화시설과 평양 문수지구의 병원촌 등을 꼽으며 이 건설 현장을 일일이 돌아본 김정은의 현지지도가 새 역사를 만들었다고 하고 있다.⁷ 김정은 집권 이후 건설은 인민을 위한 문명과 발전의 실체, 국력의 과시로서 김정은 시대의 중심 사상인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드러내는 실천 과정이자 결과로서의 실물이다. 이 글은 건설 담론과 통치전략의 밀접한 연결고리를 다룬다.

‘도시건설’에서 ‘건설’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가장 큰 단위에서는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고, 도시는 ‘거리’ 건설들로 이뤄지며, 거리는 개별 ‘건축물’들의 건설로 구성된다. 또한 도시건설의 집합은 ‘국가’ 건설의 구체적인 모습이 된다. 김정은 시대의 국가건설은 수도 평양 건설을 본보기로 삼아 지방 도시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평양은 새로 조성된 거리를 중심으로 반경을 넓혀가며, 새로 지은 살림집에는 인민을 선택배정하여 도시 ‘재건설’이 전개된다. 김정은 시대 건설은 수도와 도시건설을 본보기로 지방건설과 농촌건설로 이어지므로 특히 이 연구에서는 ‘도시건설’을 중심으로 본다.

북한의 도시나 건설, 통치와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지속돼 왔는데, 최근 북한의 도시건설과 관련해서는 도시의 특징을 건축이나 부동산 관련 정책과 제도, 법적 차원에서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최천운은 김정은 집권 전후의 평양시 살림집 건

⁶ 김정은,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번영기를 열어나가자: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2013.12.8.),” 『로동신문』, 2013.12.9.

⁷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사회주의문명국의 휘황한 미래를 펼친 건설의 대번영기,” 『로동신문』, 2022.2.8.

설정책 변화를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분석했다.⁸ 건축 관련 학회에서도 북한의 도시관리를 분석하거나,⁹ 시기별 건축계획과 구조를 파악하기도 했으며,¹⁰ 도시미화법으로 김정은 체제의 도시공간정책 변화를 살피기도 했다.¹¹

도시건설을 통치와 연결한 연구로 안진희는 통치 수단으로서 현지도도 경관을 살펴보고,¹² 정일영은 김정은 시대 유희오락시설 건설의 목표와 한계를 다뤘다.¹³ 북한 지도자들의 통치 특징을 평양의 도시미화담론과 경관으로 비교한 연구도 있다.¹⁴ 기존의 연구들이 북한의 도시건설을 분석하면서 체제의 특성과 통치 방향을 드러내고 있지만, 본 연구는 도시건설의 ‘담론’ 속에서 통치전략의 특징을 찾는다는 점에 차별성이 있다. 또한 시기적으로는 김정은 집권 10년이 지난 만큼 김정은 시대를 특정해 초기와 현재를 비교함으로써, 최근의 북한 통치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한다. “말을 결정하는 것이 정치”라는 점에서 지도자의 언어와 지도자를 둘러싼 서사는 통치전략의 핵심 분석 대상이다.

연구방법은 노동신문, 조선건축 등 북한의 공간문헌에서 도시건설 관련 용어, 문구 등의 표현이나 맥락과 서사가 나타나는 담론을 찾아 특징과 변화를 추출한다. 김정일의 도시건설 이론서가 ‘건축예술론’이라면 김정은 시대는 2013년과 2022년에 열린 ‘건설부문일군대강습’에서의 김정은 서한이 도시건설 이론을 대표한다.¹⁵ 김정은 시대 처음 개최한 건설부문일군대강습은 사회주의건설에서 가시적 성과를 담당하는 건설부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과 통치를 직접적으로 설명한 행사다. 이에 두 시기의 이 문건들은 김정은 시대 건설담론의 전기와 후기를 비교하는 기초 자료로 분석한다.

- ⁸ 최천운, “평양시 살림집 건설정책에 관한 연구,” 『부동산법학』, 제25집 제2호 (2021), pp. 135~153.
- ⁹ 김훈배·이영한, “북한의 도시관리 분석: 북한의 도시계획법과 도시경영법 중심으로,” 『2019년도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9권 제1호 (2019), pp. 84~85.
- ¹⁰ 김민아·정인하, “북한 도시 주거의 시기별 건축 계획 및 구조 체계에 관한 연구,” 『2018년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38권 제2호 (2018), pp. 46~49.
- ¹¹ 강연주·권영상, “『도시미화법』을 통해 본 김정은 체제 도시공간정책의 변화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20권 제6호 (2019), pp. 119~136.
- ¹² 안진희, “북한 통치 수단으로서 경관의 활용 방식 연구: 『로동신문』 현지도도 보도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제104권 (2020), pp. 151~170.
- ¹³ 정일영, “북한에서 전시(展示)적 도시의 건설과 한계에 관한 연구: 김정은 시대의 유희오락시설 건설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19권 1호 (2016), pp. 7~43.
- ¹⁴ 이종겸·정현주, “평양시 도시미화 담론과 상징경관 연구: 김정일, 김정은 시기의 비교,”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25권 2호 (2022), pp. 33~51.
- ¹⁵ 대표적인 문건 제목에서 보듯 김정일 시대는 ‘건축’에 집중했다면, 김정은 시대는 ‘건설’에 강조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축’보다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의 구성은 2장에서 김정은 시대 전후기 도시건설 구상과 국가목표를 살펴본 뒤, 3장에서 도시건설 담론에 나타난 통치전략의 특징을 분석하고 4장에서 평가와 전망으로 맺는다.

II. 김정은 시대 도시건설 구상과 국가목표

1. 김정은 시기 도시건설 구상과 변화 : ‘건설부문일군대강습’ 김정은 서한 비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난 시기와 달리 처음으로 개최한 행사 가운데 하나는 ‘건설부문일군대강습’이다. 2013년 제1차 건설부문일군대강습이 열렸고,¹⁶ 10년 가까이 지난 2022년 제2차 건설부문일군대강습이 개최되었다.¹⁷ 김정은 위원장은 1차와 2차 행사에 모두 서한을 보내 건설과 관련한 구상을 밝혔다. 이 서한의 내용은 ‘조선건축’ 등의 문헌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되는 등 김정은 시기 북한의 도시건설을 규정하는 지침이자 교시로 작동한다는 데 중요성이 있다. 또한 김정은 정권 초기와 10년 뒤인 현재의 건설구상을 비교할 수 있다. 통치이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두 서한의 특징과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정권이 당과 국가목표로 ‘강국’과 ‘문명국’을 건설한다는 맥락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이를 표현하는 수사에 있어서 2013년 1차 행사에서는 ‘사회주의강국’, ‘사회주의경제강국’이라고 했다면, 2차 행사에서는 ‘문명부강한 강국’, ‘위대한 강국’이라고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사회주의문명국’은 두 대회 모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김정은 집권 10년을 맞아 통치이념이 ‘우리식 사회주의’로 공식화하면서 ‘사회주의’보다도 ‘우리식’에 강조점을 두게 된 것과 연결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국가목표가 ‘사회주의강국’에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문명발전’으로 세밀하게 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국’ 건설과 ‘문명국’ 건설이라는 김정은 정권의 목표는 변함없지만, ‘문명’의 개념이 좀

¹⁶ 김정은,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변영기를 열어나가자: 건설부문 일군대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2013.12.8.),” 『로동신문』, 2013.12.9.

¹⁷ 김정은, “새로운 건설혁명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문명발전을 선도해나가자: 제2차 건설부문 일군대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2022.2.8.),” 『로동신문』, 2022.2.9.

더 확장되며 건설담론 속에서 활용되고 있다.

둘째, 현시대에 대한 명명의 차이이다. 2013년은 김정은 집권 초기로 “21세기 새로운 문명개화기, 새로운 주체 100년대”로 표현한다. 이는 정권의 시작을 강조한 수사로서 1912년생인 김일성이 탄생 100년이 되는 2012년에 의미를 둔 것이다. 김정은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인 김일성에 이어 ‘새로운 주체 100년대’를 여는 지도자로서 새롭게 문명이 ‘개화’한다고 했다. ‘새로움’과 ‘시작’을 나타내는 역할을 ‘건설’에서 찾는 것이다. 이에 비해 2022년을 이르는 시대는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전면적발전기’로서 김정은 집권 10년을 기념한다. ‘고조기’와 ‘전면적발전기’에 해당하는 건설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임무를 담고 있다.

셋째, 두 시기에서 건설이 시대적으로 차지하는 위상은 ‘건설의 전성기’에서 ‘건설의 대변영기’로 이동된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의 건설은 ‘전성기’에서 ‘대변영기’로의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2022년 건설은 ‘대변영기’를 이룬 가운데 ‘새로운 대건설시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 초기에는 김정일 시대를 거쳐 오며 건설이 전성기를 이루었으며, 이를 이어받아 김정은 시대에는 좀더 ‘새로운’ 건설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즉 2013년의 건설은 수령의 건설구상이 실제로 드러나도록 하여 후계의 명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2022년의 건설은 김정은이 이끌어온 국가의 발전상과 잠재력을 실증하는 문명의 새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변영’이라는 단어를 김정은과 매치시켜 통치전략을 나타낸다.

넷째, 건설의 시대가 달라지면서 각 시기를 대표하는 건축물도 차이를 보인다. 2013년에는 수령을 기념하는 금수산태양궁전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이 제시되었고, 짧은 기간에 완성하여 김정은의 건설 콘셉트를 보여주는 은하과학자거리,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등이 대표적이다. 2022년을 대표하는 건축물은 삼지연시가 있는데, 도시의 건설을 넘어선 지방의 본보기 건설로 내세우고 있다. 이 밖에 인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대상과 금성프락토르공장 개건현대화, 에네르기절약형제철로건설, 중평남새온실을 본보기로 한 대규모남새온실농장 등을 건설의 과제로 제시해 전반적인 인민생활향상과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부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섯째, 건축사상은 2013년 ‘주체의 사회주의건축’에서 2022년 ‘주체건축’으로 단순화되었다. 2022년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생략하고 북한 방식을 나타내는 ‘주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김정은 시대 건축을 ‘주체건축’으로 표현한 것은 ‘우

리식'의 의미를 앞세운 통치이념의 변화와 관련된다. 2013년에는 '대원수들의 건설령도'에서 '당의 령도'로 건설역사가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면, 2022년은 건축의 원칙으로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김정은 시대의 본격화를 보여준다.

여섯째, 건축의 원칙에서는 2022년 '미학'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2013년 건축의 원칙은 '선편리성, 후미학성, 선하부구조, 후상부구조건설원칙'이었는데, 2022년 건축의 원칙은 '선편리성, 선미학성, 선하부구조의 원칙'으로 일부 수정되었다. 즉 2013년에는 원칙들 사이의 '선후'를 구분했다면 2022년에는 원칙의 '선후' 구분 없이 '강조점'을 두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편리성'을 우선에 두었을 뿐 아니라 '후미학성'에서 '선미학성'으로 바꾸어 '미학'을 강조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¹⁸

일곱째, 건축에 있어서 실용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2013년에는 건설사업을 세계적 수준과 높이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나 2022년에는 아직 건설이 세계를 앞서는 시야와 안목을 갖추지 않았다고 결함을 지적하고, 특히 인민의 미감과 정서를 반영해 특색있고 실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총화했다. 10년 전의 주문대로 세계적 수준으로 아직 올라서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건설이 국가 사회생활의 실제적 변화와 밀착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건설부문일군대강습 김정은 서한은 2013년에 국가통치의 큰 그림 속에서 건설의 역할을 설명했다면, 2022년에는 국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건설이 역할을 한다는 점을 10여 년 만에 다시 강조하며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건설은 국가의 대계를 세우는 것처럼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며 종합적인 산업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보여주기'만이 아니라 경제와 산업을 만들어가는 구상이며, 곧 통치전략임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김정은 시대의 도시건설 구상은 지난 10년간의 건설 성과를 바탕으로 건설의 번영기를 맞이했으며, 세계적 수준의 건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식 사회주의'의 의미가 좀 더 드러나는 문명강국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¹⁸ '선미학성'이라는 표현에 대해 '정치수사적 미학'을 뜻하는 '퇴보적 담론변화'라는 분석이 있지만, 김정은 시대 '사회주의선경'이나 '이상향' 등이 자주 강조된 것은 편의성뿐 아니라 건축예술적 미학성의 의미를 담은 것이다. 이는 단지 미학적 요소를 강조했던 김정일 시대의 이론으로 되돌아간 것이 아니라 김정은 시대의 건설 요소로서 미학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종겸·정현주, "평양시 도시미화 담론과 상징경관 연구: 김정일, 김정은 시기의 비교,"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25권 2호 (2022), pp. 45~46.

2. 김정은 시기 북한의 국가목표 : 강국과 문명국 건설

김정은 시대 통치이념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자강력제일주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등의 구호로 요약된다. 집권 초기에는 김정일의 통치이념을 이어가는 유헌통치로 시작했다. 2012년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제기하고,¹⁹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는 이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은 2012년을 ‘새로운 주체 100년’으로 명명하고 ‘김정은 시대’를 만들어나간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은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설명하면서,²⁰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의 사상으로 자리 잡은 ‘인민대중제일주의’는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전면 부각되어 김정은 시대의 핵심 통치이념임을 알린다. 현재 인민대중제일주의는 당의 근본이념이자 정치철학으로서 인민에게 더욱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는 목표와 연결된다.²¹

‘자강력제일주의’는 2016년 신년사에서 등장한 뒤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전략적 노선으로 강조되었다.²² 대북 제재라는 대외 위기에서 시작해 2020년 정면 돌파전을 제기하기까지²³ 북한은 전 분야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인민을 동원한다. 건설 부문에서도 외부 도움 없이 자체의 자원과 노력으로 이룬 것을 ‘자력갱생’과 ‘자강력’의 상징으로 의미화했다.²⁴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2017년 북한이 화성-15형 발사 성공으로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등장했다.²⁵ 이후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위해 대내적 결속을 꾀하는 사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8차 당대회 이후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부흥’을 내세우며 소집된 2021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전면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획기적인 발전단계에 들어섰다고 언급한

¹⁹ 김정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과 한 담화(2012년 4월 6일),” 『로동신문』, 2012.4.19.

²⁰ 김정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하신 연설(2013년 1월 29일),” 『로동신문』, 2013.1.30.

²¹ “사설: 새시대 5대당건설방향을 따라 전당강화발전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로동신문』, 2022.10.21.

²²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2016년 5월 7일),” 『로동신문』, 2016.5.8.

²³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0.1.1.

²⁴ 전만길, “론설: 절세위인들을 모시여 년대와 세기를 이어 승승장구하는 주체건축,” 『조선건축』, 제5호 (평양: 공업출판사, 2018), p. 7.

²⁵ “사설: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민족의 대경사, 위대한 조선인민의 대승리,” 『로동신문』, 2017.11.30.

다.²⁶ ‘우리식 사회주의’는 김정일 시대 이후 언급됐던 ‘우리 식 사회주의’ 구호가 김정은 집권 10년을 맞아 국가목표로서 고유명사가 되었음을 ‘우리식’의 붙여쓰기 어법의 변화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²⁷ 즉 ‘우리식 사회주의’는 김정은 정권이 내세우는 국가목표의 방향이자 궁극적 도달점으로서 재규정된 구호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시대가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이라는 집권 10년 차 국가의 방향을 제시하기까지 북한의 국가목표는 구체적으로 강성국가 건설과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이었다. 김정은 정권 초기, 건설이 통치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보여주는 문건으로 2012년 5월 8일 ‘국토관리총동원운동열성자대회’에서 전달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가 있다.²⁸ 여기서 북한의 국가목표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이며 이를 위해 수도부터 지방도시까지, 산과 강, 바다를 아우르며 국토관리사업을 펼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평양은 혁명적수령관이 선 혁명의 수도이자 웅장화려하고 풍치수려한 세계적인 도시로 꾸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정일이 만수대언덕에 김일성 동상을 세웠다면, 김정은은 만수대언덕에 김정일 동상을 추가하고 금수산태양궁전지구, 만경대혁명사적지 등을 잘 꾸리도록 하여 혁명적수령관이 담긴 평양 건설을 계승했다. 정권 초기 평양은 김정일의 건설 방식을 따르는 유훈통치로 도시건설 계획이 세워졌다. 특히 김정은은 평양시 야경을 “강성국가의 수도답게” 황홀하고 희한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야간열병식과 축포 등을 통해 실천된다. 또한 ‘국토의 면모’를 일신하고 ‘풍치’를 좋게 하며, ‘도시미화’를 개선시키는 등 미관을 증시한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은 ‘눈에 보이는 나라의 모습’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사회주의선경’이라고도 표현된다. 이 담화는 ‘강국’의 모습이 ‘사회주의선경’이자 ‘인민의 락원’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김정은 정권 초기 국가목표와 건설담론을 보여준다.

김정은 시대 통치전략용어인 ‘강국’은 대북 제재에 대응해 핵을 내세우며 ‘자강력제일주의’를 구호로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한 북한의 목표이다. ‘강국’은 경제, 과학기술, 문명, 인재, 교육, 청년, 체육, 정치사상, 핵 등을 수식으로 포괄

²⁶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 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로동신문』, 2021.9.30.

²⁷ 박소혜, “김정은 정권의 ‘우리식 사회주의’ 의미 변화와 시사점,” 『국가안보와 전략』, 제22권 3호 (2022), p. 87.

²⁸ 김정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2012.4.27.),” 『로동신문』, 2012.5.9.

하는 북한의 국가목표로 전개된다.²⁹ 김정은은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징표에 대해 “일심단결, 불패의 군력, 새 세기 산업혁명”이라고 규정하여 국방력과 함께 ‘과학’을 강조한 바 있다.³⁰ 이는 건설 부문에서도 ‘과학’을 강조하는 기조로 연결된다.

김정은 정권의 또 다른 핵심 통치전략용어인 ‘문명’은 물질문화와 정신문화의 총체로서 발전된 문화수준을 일컫는데,³¹ 2012년 4월 6일 김정은 담화에 처음 등장한다.³² 여기서 사회주의문명국은 교육, 보건, 문학예술, 체육 등 문화건설 모든 부문의 발전을 의미한다. 특히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 발표 이후 교육 분야의 발전에서 ‘문명’이 강조되었으며,³³ 사회주의제도를 대표하는 교육과 보건 부문에서 인민들이 ‘문명한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 향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문명국은 문화 부문에 그치지 않고 도시건설에 그대로 적용된다. 2013년 신년사에서 생활·정신·체육 등 문화 분야와 도시건설 등에서 ‘선진적 문명강국’을 세우도록 하는 것으로 개념화되었다. 인민들을 위한 현대적인 문화후생시설과 공원, 유원지들을 더 많이 건설해 인민들이 ‘새시대의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하여 ‘문명국’의 조건이 도시건설에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³⁴ 2019년은 자력강생을 강조하며 경제강국 건설의 한 방법으로 ‘문명’이라는 용어를 인민생활향상과 결부하여 통치의 핵심 키워드로 활용한다. 건설에서 ‘문명’은 인민이 중심이 되어 누리는 것이지만, 대외적으로도 북한의 발전을 보여 주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건설 부문에서 강조되는 ‘미래’나 ‘환경’ 등은 ‘문명’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설명한다.

즉 ‘강국’과 ‘문명’은 김정은 시대 국가목표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북한의 ‘부국강병’, 경제와 국방을 상징한다. ‘강국’과 ‘문명’이라는 김정은 시대 국가목표 키워드와 관련해 도시건설 담론에서는 ‘과학’, ‘미래’, ‘환경’ 등의 핵심 용어를 추출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김정은 시대 도시건설 담론이 건설에서 구체화하는 통치전략으로서 과학, 미래, 환경 등의 키워드를 설정해 특징을 살펴본다.

²⁹ 홍민·강재연·박소혜·권주현,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21), p. 31.

³⁰ 김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2012.4.15.),” 『로동신문』, 2012.4.16.

³¹ 『삼흥 3.0판 다국어대사전』 (평양: 삼일포정보센터, 2004).

³² 김정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2012.4.6.),” 『로동신문』, 2012.4.19.

³³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로동신문』, 2012.9.27.

³⁴ 김정은, “신년사,” 『로동신문』, 2013.1.1.

Ⅲ. 도시건설 담론에 나타난 북한의 통치전략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정은 시대 도시건설 담론은 정권 초기부터 10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며 물리적 실체 구성과 병행되었다. ‘강국’과 ‘문명’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시건설 담론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본다면 ‘과학, 미래, 환경’ 등 크게 3가지 키워드를 꼽을 수 있다. 3개의 키워드는 성격이 명확하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서로를 구성하고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도시건설 담론의 특징과 구체화된 사례들을 북한의 통치전략과 연결해 설명하기 위해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과학 : ‘자력갱생’과 ‘전민과학기술인재화’로 구호화

도시건설에 ‘과학’이 구현된 사례는 거리와 살림집에 대한 지도자의 ‘명명’에서 드러난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설 업적은 2013년 가시화되는데, 김정은 정권의 첫 살림집 거리인 ‘은하과학자거리’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과학자살림집’은 주거공간과 거리 이름에 ‘과학자’가 붙은 최초의 사례이다. 살림집이라는 ‘친인민’ 건설물과 ‘과학’이라는 키워드의 결합은 김정은 정권이 초기부터 ‘과학’을 내세웠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과학자살림집과 2014년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은 국가에서 특별히 중시하는 과학자와 교육자를 위한 주택 단지로 건설되었다. 살림집 이름부터 교육자와 과학자들을 위한 주거공간이라는 차별적 혜택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데, 과학자는 이후에도 매해 최우선 혜택의 대상이라는 점이 전략적으로 전시된다.

은정과학지구의 위성과학자주택지구(2014)는 북한의 인공위성인 ‘광명성’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들과 국가과학원 소속 과학자들을 위한 단지로서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의 본보기로 제시된다.³⁵ 김정은은 현지지도에서 공터에 남새밭을 만들자고 제안했을 뿐 아니라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입주할 과학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일정도 바꾸고, 이들과 국가과학원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밝혀 ‘과학중시사상’을 몸소 보여주었다.³⁶ 미래과학자거리(2015) 역시 김책공대교육자살

³⁵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일떠선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현지지도하시었다.” 『로동신문』, 2014.10.14.

림집을 비롯해 핵과 미사일 개발자 등 과학자와 기술자 살림집이 들어서 있다. 역시 ‘사회주의문명국’의 본보기이자 과학자 모범도시건설의 사례로 들고 있다. 2022년 준공된 평양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도 나라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한 근로자들에게 배정되었는데, 여기에는 과학인재들이 포함된다.³⁷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사상에 따른 건설물로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2015년 개건), 과학기술전당(2016), 평양교원대학(2017년 재건립) 등이 있다. 김정은은 창성군 현지도에서 전자도서관 이름을 ‘미래원’으로 바꾸라고 지시하는 등 과학번영강국을 내세우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사상을 건축물에 새겼다. 각 군들에 꾸리는 전자도서관을 ‘미래원’으로 부르며 ‘과학’의 힘으로 흥하고, 조국의 내일을 앞당긴다는 ‘미래’ 의미도 함께 담았다.

2022년 건설된 연포남새온실농장은 과학기술발전 기여자들에게 ‘군사기지’를 내어준 과학자 우대 사례로 꼽힌다.³⁸ “나라의 경제와 과학기술발전에 수고가 많은 함흥시의 로동계급과 과학자들에게 신선한 남새를 공급”한다며 새 시대 문명을 과시하는 대규모의 농장지구를 건설하고 1,000여 세대 살림집 등을 건설했다. 농장이 있는 함흥은 ‘과학도시’로 칭하며 ‘과학’을 부각했다.³⁹ 또한 이를 국가의 필승불패 위상을 만방에 과시하는 계기로 삼아 도시건설 담론의 ‘과학’과 ‘강국’ 목표를 연결하고 있다.⁴⁰

이처럼 김정은 정권 초기부터 꾸준히 강조되고 있는 ‘과학기술’은 도시건설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과학기술은 북한의 국가목표를 추동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과학기술 발전은 ‘건설의 대번영기’를 여는 지름길로 언급된다. 삼지연군 건설장 현지도에서는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한길 따라 힘차게 나아가자”는 표현이 나오며,⁴¹ 순천린비료공장을 준공하면서는 ‘자력부강, 자력번

³⁶ 서주성,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길에서,” 『로동신문』, 2022.10.27.

³⁷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당중앙의 위대한 이민위천의 리념이 펼친 주체건축의 새로운 발전경지, 보통강강안의 성스러운 터전에 로동당시대의 문명과 부흥을 상징하는 다락식주택구의 본보기가 일떠선데 대하여(2022.4.14.),” 『로동신문』, 2022.4.15.

³⁸ 조용원, “련포온실농장 준공식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용원동지의 준공사,” 『로동신문』, 2022.10.11.

³⁹ 김정은, “함남도인민들을 위한 련포온실농장건설에서 인민군대의 전투적기질을 높이 떨치라: 련포온실농장건설착공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2022.2.18.),” 『로동신문』, 2022.2.19.

⁴⁰ “위대한 어머니당이 우리 인민에게 안겨준 또 하나의 사랑의 선물, 경사로운 10월의 명절을 맞으며 련포온실농장 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몸소 준공테프를 끊으시었다,” 『로동신문』, 2022.10.11.

⁴¹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군안의 건설장들을 현지도하시었다,” 『로동신

영의 창조물'이라고 언급한다.⁴² 어랑천발전소도 함경북도 인민과 군인 건설자들이 자력갱생로선을 통해 이룩한 성과로 보도되었다.⁴³

'자력갱생' 구호에서 자력갱생의 기관차는 '과학기술'이며, 기본 목표는 국산화로 제시된다. 자력갱생의 선구자는 '자강력'으로서 2016년 '자강력제일주의'에 이어 2020년 '정면돌파전'으로 맥락적 의미가 이어지고 있다.⁴⁴ 대북제재와 방역 봉쇄 등 어려운 대외환경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정면돌파전에서 기본전선은 경제전선, 주타격전방은 농업전선, 열쇠는 과학기술로 설명된다. 2021년 8차 당대회에서는 그동안 과학기술이 실지 나라의 경제사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못 했다며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은 "국가적인 자력갱생, 계획적인 자력갱생, 과학적인 자력갱생"이 되어야 한다고 자력갱생과 과학을 다시 한번 밀접하게 연결했다.⁴⁵

둘째, 과학은 강국과 문명국을 건설하는 실용적이고 실질적 수단이면서도 교육과 인재와 관련한 '사상' 차원에서 구호화되고 있다. 사상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북한 체제에서 과학은 '사상화'할 만큼 중시한다는 얘기다. 과학기술은 강국과 문명국이라는 국가목표로 가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을 만들고 적용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과학자'와 그 과학자를 키워내는 '교육자'가 중시된다. 또한 과학기술은 특정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모든 분야에 적용되므로 '교육'과 '인재'를 강조하며, 건설에서도 이들을 우대한다.

김정은은 2013년 제9차 전국과학자기술자대회에서 '과학기술발전에서 전환을 일으켜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라는 문헌을 전달하고 지식경제와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언급하며 '과학기술강국'과 '지식경제강국'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⁴⁶ 북한은 현시대를 '지식경제시대'로 부르는데, 인민생활 전반의 향상을

문』, 2019.10.16.

⁴² "위대한 정면돌파전사상이 안아올린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창조물 순천린비료공장 준공식 성대히 진행," 『로동신문』, 2020.5.2.

⁴³ "조선중앙통신사 상보: 우리당 자력갱생로선의 생활력을 과시하며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선 대동력기지, 어랑천발전소건설을 성과적으로 결속한 함경북도인민들과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에 대하여(2022.8.5.)," 『로동신문』, 2022.8.6.

⁴⁴ "주체혁명위업승리의 활로를 밝힌 불멸의 대강,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 대한 보도," 『로동신문』, 2020.1.1.

⁴⁵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1.1.9.

⁴⁶ "전국 과학자, 기술자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전달," 『로동신문』, 2013.11.14.

의미하는 ‘경제’를 수식하는 ‘지식’은 과학기술과 교육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김정은 정권의 강조점이 드러난다. 김정은은 2014년 전국교육일군대회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라는 문헌에서도 강성국가건설 목표를 위해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사회주의교육강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과학’과 ‘교육’을 같은 맥락에서 언급한다.⁴⁷ 즉 과학기술은 도시건설 담론을 통해 ‘자력갱생’과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창출하여 통치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2. 미래 : ‘문명부흥의 새 시대 지도자와 청년’으로 의미화

강국과 문명국을 향한 도시건설에는 ‘미래’라는 상징이 구현되기도 했는데, 거리나 주택단지 이름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 2015년 미래과학자거리와 살림집의 ‘미래’는 과학이 여는 ‘미래’를 의미한다. 2017년 준공된 려명거리의 ‘려명’은 동트는 ‘새 시대’를 의미하는 작명이다. 이때 ‘미래’의 의미는 4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나라의 미래로서 ‘문명’을 의미한다. 문명은 ‘과학’이자 ‘미래’이며, ‘환경’이기도 한데, ‘미래’라는 키워드로 ‘문명국’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2021년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 착공식에서 김정은은 연설을 통해 “건설의 목적은 수도시민에게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하는 데 있다고 하여 건설과 문명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켰다.⁴⁸ 2022년 련포남새온실농장 건설 착공식에서 김정은은 현장의 살림집과 공공건물 등을 아울러 “우리 시대 문명이 응축된 농장지구”로 언급하며 “우리식 농촌문명창조의 새로운 거점”이라고 칭한다.⁴⁹ 2022년 평양 송화거리 준공식에서도 “문명의 새 거리”로 규정되었는데, 통치이념인 ‘우리식 사회주의’와 함께 “우리식 사회주의문명부흥”으로 지목한다.⁵⁰ 송화거리는 “평양의 래

⁴⁷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가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전달되었다.” 『로동신문』, 2014.9.6.

⁴⁸ 김정은, “5만세대 살림집건설로 우리 수도를 다시한번 웅장하게 변모시키자: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2021.3.23).” 『로동신문』, 2021.3.24.

⁴⁹ 김정은, “함남도인민들을 위한 련포온실농장건설에서 인민군대의 전투적기질을 높이 떨치라: 련포온실농장건설착공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2022.2.18).” 『로동신문』, 2022.2.19.

⁵⁰ “우리식 사회주의문명부흥의 새 전기를 펼친 인민사랑의 기념비, 송화거리 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테프를 끊으시었다.” 『로동신문』, 2022.4.12.

일”로 의미화되었고, 현장에서 보여주는 “〈복두칠성〉 글밭”을 통해 은하계로 상징되는 김정은을 복두칠성으로 표현하며 지도자가 이끄는 미래를 그렸다.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지구 역시 인민의 행복을 위한 건설은 ‘문명한 미래’를 창조해나가는 백년지계 애국사업이라고 설명한다.⁵¹ 문명의 본보기는 수도 평양에서 시작되었지만, 산간도시의 본보기로 삼지연시가 등장한 뒤에는 각 지역에서 새로 건설되는 살림집 단지와 마을을 ‘농촌문명’으로 언급하며 문명의 범위가 점차 확대된다. 이는 구체적인 도시건설 사례에 통치이념을 결합함으로써 새로 건설되는 도시의 모습이 곧 ‘김정은 시대’를 나타낸다는 통치전략을 보여준다.

둘째, 미래는 인민의 미래로서 후대, 즉 ‘새 세대’를 의미한다. 김정은 시대에는 특히 ‘청년’을 강조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 전국 도시군 학생소년궁전 실태 파악과 시설 개보수를 지시하는 등 새 세대의 교육과 복지에 관심을 쏟아 왔다. 백두산 청년발전소건설장(2015)에서 ‘청년강국’이 언급됐고, ‘청년’을 강조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대회(2016)도 개최했다. 강국 건설은 ‘후대’들을 위한 것이며, 이는 ‘공산주의미래’로 나아가는 후대관과 미래관으로 설명한다.⁵² 새 세대 청년을 강조한 김정은 정권은 건설현장에서 청년의 참여를 독려하며 새 세대가 만들어가는 도시건설을 그려 왔다. 청년들이 참여한 건설현장으로는 ‘청년강국, 영웅청년신화’ 등이 언급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비롯해⁵³, 창전거리, 은하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류경원, 과학기술전당, 평양국제축구학교, 삼지연학생소년궁전, 민들레학습장공장, 순천린비료공장 등이 있다. 집권 초기에는 경상유치원 현지지도에 이어 평양애육원과 육아원 건립 등으로 후대 증시사상을 보여주었으며, 만경대강반석혁명학원에 대해서는 미래의 핵심인재를 교육하는 장소로 중요성을 짚은 바 있다.

셋째, 미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도자인 김정은 자체를 상징한다. 김정은 시대는 ‘새로운 주체 100년’으로 시작하는데, 지도자 김정은이 만들어가는 앞으로의 100년은 ‘문명국, 강국, 번영의 시대’라고 하여 끊임없이 미래를 불러들임으로써 김정은을 ‘미래의 상징’으로 의미화하고 있다. 태양절 등에 건축물을 완공시키

⁵¹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과 주체건축의 비약적발전상이 응축된 평양의 새 경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준공식에 참석하시어 준공테이프를 끊으시었다,” 『로동신문』, 2022.4.14.

⁵² 김성남, “주체조선의 도도한 진군은 우리당 혁명로선의 과학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과시이다,” 『로동신문』, 2022.11.6.

⁵³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에서 하신 연설,” 『로동신문』, 2015.10.4.

면서 수령의 미래가 이어지고 있음을 상기시키는가 하면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신화 창조’라는 지도자의 시대어가 속속 제시된다. “련포전역에서는 시간과의 전쟁, 새 기준, 새 기적창조의 공격전이 순간도 멈춤없이 전개”된다고 하여 ‘련포불바람’과 같은 건설신화 창조를 독려했다.⁵⁴ 이는 전면적 국가발전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지도자의 미래 통치전략을 보여 주는 것이다.

넷째, 미래는 ‘속도’로 미래를 앞당긴다는 ‘시간’을 뜻하기도 한다. 도시건설에서 공간이 변화하는 시간을 단축해 보여줌으로써 극적인 효과를 의도하는 것이다. ‘김정은의 혁명시간’을 다룬 로동신문 기사에서는 “하루를 열흘, 백날맛잡이로 헌신”, “분과 초로 이어지는 수자의 흐름만으로는 그 의미를 다 설명할수 없는 성스러운 시간”, “10년이 1년으로 단축되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모든 것이 변모되는 경이적인 현실”, “부흥강국의 시간표는 더욱 앞당겨지게 될 것” 등과 같은 표현으로 속도감 있는 시간을 지도자의 통치전략으로 그리고 있다.⁵⁵

김정은 시대 등장한 마식령속도, 조선속도, 평양속도, 만리마속도 등은 모두 건설현장 구호다. 2013년의 ‘마식령속도’는 마식령스키장 건설을 10년이 아닌 1년 안에 한다는 의미로 ‘건설의 대전성기’ 문명국의 상징으로 언급된다.⁵⁶ 김정은은 “마식령속도와 같은 시대어를 창조”해야 한다고 하여 건설에서의 명명을 통치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⁵⁷ ‘조선속도’는 2014년 ‘조선속도창조의 불길’, ‘새로운 조선속도 창조’에서 나왔고, 2015년에 주로 활용된 ‘평양속도’는 전쟁 후 건설 붐이 일었던 과거를 소환하며 ‘1950년대 평양속도창조’라고 일컬어졌다. 김일성의 천리마시대를 대표하는 ‘평양속도’는 주택건설에서 조립식건축으로 공사 기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건설속도를 이르는데,⁵⁸ 김정은 시대의 ‘조선속도’는 ‘새로운 평양속도’이며, 이후 등장한 ‘만리마속도’는 좀더 전진한 ‘새로운 조선속도’로 규정되었다.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만리마속도’가 확립되었고, 원산군민발전소 건설자들에게 ‘강원도정신’이라고 하여 ‘만리마시대의 본보기정

⁵⁴ 조용원, “련포온실농장 준공식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용원동지의 준공사,” 『로동신문』, 2022.10.11.

⁵⁵ 백영미,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혁명시간,” 『로동신문』, 2022.11.13.

⁵⁶ 김정은, “호소문: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2013.6.4.),” 『로동신문』, 2013.6.5.

⁵⁷ 김정은,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연설,” 『로동신문』, 2014.2.26.

⁵⁸ “1만 7천 여 세대의 주택건설을 위하여,” 『로동신문』, 1958.2.25.

신'으로 규정했다. 즉 속도의 구호화는 건설로써 미래상을 제시하는 지도자의 통치전략이 되어 왔다. 종합하면, '미래' 키워드는 문명화된 시간으로서 새 세대를 담당하는 청년과 지도자의 상징으로 의미화되었다.

3. 환경 : 통치를 구체화한 '도시건설의 시각화' 전략

김정은 시대 도시건설에서 구체적인 실체로서 구현되는 '환경'은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김정은 시대가 중시하는 도시건설의 '미감'을 의미한다. 환경은 미감, 미학, 이상도시 등을 의미하는 '미적 추구'라고 풀이할 수 있다. 2013년 언급한 '후미학성'이라는 건설 원칙이 바로 다음해인 2014년 '선미학성' 원칙으로 바뀐 것에서도 '미학' 중시 입장이 확인된다. 건설을 통해 '나라의 면모'를 강조하는 언술에서도 도시건설 환경에서 시각적 미감을 중시하는 지도자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특히 거리의 조화로운 구성이나 색채감, 건축물의 립면과 색채, 실내장식과 가구에서의 색채 등을 강조하는 건설에서의 '미감' 담론은 대표적인 특징이다.⁵⁹

김정은은 현지도에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수산업을 강조하며 '이채어경'으로 표현하고 강원도 해변에 꾸려지고 있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인파십리'라고 지칭한 바 있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상징으로 건설하는 평양종합병원과 아동치과병원 등 보건 분야 건축물을 '사회주의영상'으로 일컫는 것 역시 통치의 시각화 전략을 드러낸다. 건축물, 거리, 도시의 관계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립면이 굴곡있고 변화있게 형성되어야 도시와 거리, 마을이 자기의 고유한 특징이 살아나게, 황홀하고 특색있게 꾸려질수 있다"라고 설명한다.⁶⁰ 건축군과 살림집군, 도시는 개별적인 건축물과 건축군, 거리의 조화로운 결합에 의하여 형성된다고 보는 등⁶¹ 통치의 결과물로서 건설에서의 면면이 드러내는 미감을 중시한다.

둘째, 도시건설에서의 '환경'은 어두운 곳에서도 경관이 드러나도록 하는 '야경'을 포함한다. 북한은 새로 건설한 살림집 단지와 거리에 조명 장식을 꾸려 야간

⁵⁹ 김용혁, "건축물의 립면을 특색있게 형성하는 것은 건축창조에서 나서는 선차적이며 필수적인 요구," 『조선건축』, 제3호 (평양: 공업출판사, 2018); "년대별에 따르는 도시형살림집의 내부마감장식," 『조선건축』, 제5호 (평양: 공업출판사, 2018); "건축형성에서 예술성호상성, 호환성, 연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 『조선건축』, 제2호 (평양: 공업출판사, 2019); "건축립체적조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반복구성원칙," 『조선건축』, 제4호 (평양: 공업출판사, 2019).

⁶⁰ 김용혁, "건축물의 립면을 특색있게 형성하는 것은 건축창조에서 나서는 선차적이며 필수적인 요구," 『조선건축』, 제3호 (평양: 공업출판사, 2018), p. 3.

⁶¹ 박창식·리은광, "도시건축형성에서 예술적호환성에 대한 일반적리해," 『조선건축』, 제4호 (평양: 공업출판사, 2019), p. 4.

에 행사를 하거나 밤 풍경 이미지를 매체로 내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밤 풍광에 주의를 기울여왔다. 야경은 야간열병식과 야간공연 등으로도 꾸며지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전력난’을 상쇄하려는 시각화의 의도를 포함한다. 야경의 화려함은 ‘과시적 보여주기’에 해당하며, 밝은 빛은 ‘미래, 지도자’를, 강렬한 불빛은 ‘핵, 강국’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평양시의 야경은 ‘평양시관리법’에 담긴 의무다. 105층짜리 평양 류경호텔에 움직이는 조명을 설치한 것은 평양시의 야경을 ‘강성국가’의 수도답게 황홀하고 희한하게 꾸며야 한다는 통치전략에 따른 것이다. 새해맞이 공연도 야간에 열고 있다. 2017년 새해맞이 평양얼음조각축전, 2019년 설맞이 축하무대, 2020년 평양얼음조각축전, 2021년 신년경축공연 모두 야경을 강조한 바 있다. 열병식도 밤에 진행되었다. 2020년 당 창건 75주년 야간열병식은 직전 8월 13일 정치국회의에서 ‘특색있게’ 준비하라는 지침에 따른 것인데, 불꽃축제 ‘빛의 조화-2020’으로 전야제를 펼쳤다. 2021년 8차 당대회와 2021년 공화국 73주년 기념식, 2022년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행사 모두 야간에 열병식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야간 열병식을 북한 도시건설을 빛내는 대표적인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 도시건설에서 ‘환경’은 ‘친환경’을 뜻하기도 한다. 김정은 집권 초기부터 북한은 자원을 절약하고 인민 건강에 도움이 되며 지구환경에도 보탬이 되는 친환경 ‘록색건축’을 강조했다. 김정은 시대 건설된 평양의 살림집 거리가 대표적이다. 미래과학자거리, 미래와 과학자를 내세운 거리 이름처럼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도입한 태양열 온실’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친환경 건설을 내세웠으며, 아파트 외벽에는 네온사인 조명을 설치해 야경에 신경을 썼다. 려명거리와 평양 1만세대 살림집, 보통강강안다락지구 모두 ‘록색건축’을 내세웠다. 공산주의 이상거리로 언급된 려명거리는 건축물을 녹색으로 하고 녹화면적을 확대해 첨단녹색건축의 상징으로 꾸미면서 친환경 건축물임을 직관적으로 나타냈다.⁶² 에너지절약거리이자 ‘불장식’을 두어⁶³ ‘김정은조선의 대비약’을 상징하는 현대건축거리의 본보기, 표준으로 규정된다. 평양 5만세대 살림집 건설 역시 록색건축, 건식공법 등과 같은 건축기술과 건설공법을 도입해 ‘리상거리’로 건설한다는 포부를 내보였다.⁶⁴ 건설정책에는 재자원화와 공원화, 수림화와 원림화 등을 강조하며 산림복구

⁶² “만리마속도에 박차를 가하며 완공의 그날을 앞당긴다.” 『로동신문』, 2017.2.5.

⁶³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려명거리건설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2017.3.16.

와 녹지환경을 강조하고 있다. ‘아름답고 문명한 사회주의선경’을 꾸릴 것이라는 취지를 법제화한 ‘원림 녹화법’ 채택은 도시건설에 환경 담론을 심은 북한의 국가 목표를 보여준다.⁶⁵ 이는 대북제재로 인한 자원부족을 북한 내부에서 끌어내려는 자력갱생 차원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상국가 이미지를 심으려는 통치의 전략적 의도도 있는 것이다. 환경은 ‘문명강국’을 향한 통치의 시각화 전략을 담은 건설담론으로 작용하고 있다.

IV. 결론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 북한의 도시건설 담론의 전개를 살펴본 결과 통치전략으로 드러나는 긴밀한 건설 목표와 함께 세밀한 변화를 포착할 수 있었다. 김정은 시대 도시건설은 ‘사회주의강국’과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이라는 국가목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담론을 형성하며 구체적인 실체로 구성되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내세운 정권 초기에는 만수대언덕과 금수산태양궁전 등을 중심으로 선대 수령의 통치를 계승하는 건설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곧 김정은 시대의 정치사상인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되었고, 인민을 내세운 각종 문화시설과 보건 휴양 교육 시설 등이 ‘문명국’의 조건이자 상징으로 건설되었다. 대북제재 등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 속에서 북한은 ‘우리 국가제일주의’ 구호로 핵무력을 강화하며 ‘강국’ 목표를 강조해 나갔고, 대내외에 북한의 건재를 과시할 만한 시각화로서 도시를 건설해 왔다. 이는 ‘건설의 전성기’에서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시작한 김정은 시대가 ‘건설의 변영기’로 이동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 발전기’로 전환하는 담론과 연동된다.

김정은 시대의 도시건설 담론으로 본 통치전략의 특징은 ‘과학, 미래, 환경’ 등 3가지 핵심 키워드로 요약된다. 첫째, ‘과학기술’을 강조하여 ‘자력갱생’과 ‘전민 과학기술인재화’라는 구호를 통치에 활용하였다. 둘째, ‘미래’를 내세워 ‘문명화된 시간’을 ‘속도’를 내서 따라잡아야 하는 것으로 의미화하였으며, 청년과 지도자

⁶⁴ 김정은, “5만세대 살림집건설로 우리 수도를 다시한번 웅장하게 변모시키자: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2021.3.23.),” 『로동신문』, 2021.3.24.

⁶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1일회의 진행,” 『로동신문』, 2022.9.8.

자체를 ‘미래’로 상징화하였다. 셋째, 미학과 국제적 위상의 의미를 담은 ‘환경’은 ‘문명강국’을 구체화한 시각화 전략 담론이 되었다.

김정은 집권 10년을 맞아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부흥’을 내세운 북한은 궁극적인 도달점으로서 ‘북한 인민’과 ‘북한이라는 나라’의 ‘북한식 건설’을 확고히 해왔다. 그동안 강국과 문명국의 면모를 압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수도 평양 건설에 좀더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건설의 본보기를 농촌과 지방단위로 확장해 나가는 모양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최근 구사하고 있는 명명은 ‘새로운 평양변영기’이다.⁶⁶ ‘건설의 변영기’를 맞아 세계적 수준을 추구하는 한편, ‘새로운 평양변영기’를 맞아 세계적 수준의 건설 본보기 전국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국과 문명의 집중화된 시각화를 위해 과학 인재를 중심으로 평양의 새 살림집에 배정해 특별한 우대정책을 시행해 왔다면, 앞으로는 각 지역으로도 이 같은 본보기 사례가 확장될 전망이다. ‘과학도시’ 함흥의 농장과 살림집 건설은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김정은 정권 초기보다 도시건설에서의 ‘건축미학’과 예술성 등을 더욱 강조하고 세계적 추세인 친환경 건축과 지능건축 등을 담아내려 하는 것은 북한의 도시건설이 고립된 북한의 세계화 갈망을 물리적으로 극복해 나가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김정은 시대’는 선대 수령의 건설 담론을 이어받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새로운 주체 100년대’, ‘새로운 평양속도’, ‘새로운 대건설시대’ 등과 같은 ‘새로운’이라는 수식어로 건설 담론을 전개하며 김정은 정권의 차별화된 통치전략들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본 논문은 김정은 시대에 한정하여 건설담론과 통치전략을 살펴본 연구로 북한 정권 전체 시기에서 현시대의 특징을 조망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김정은 시대의 통치전략이 건설구상과 얼마나 조응하는지 지속적으로 추적해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다.

■ 제출: 5월 1일 ■ 심사: 5월 26일 ■ 채택: 5월 30일

⁶⁶ 1980년대가 ‘평양변영기’였다면, 화성지구 건설은 ‘새로운 평양변영기’를 상징한다. “조선중앙통신사 상보: 로동당시대의 새로운 평양변영기에 창조된 또 하나의 건설기적, 당중앙의 웅대한 수도건설구상을 결사의 실천으로 받들어 군민건설자들이 화성지구 1단계 살림집건설을 훌륭히 완공한데 대하여,” 『조선중앙통신』, 2023.4.19.

참고문헌

1. 단행본

홍민·강채연·박소혜·권주현.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21.

2. 논문

강연주·권영상. “『도시미화법』을 통해 본 김정은 체제 도시공간정책의 변화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20권 제6호, 2019.

김민아·정인하. “북한 도시 주거의 시기별 건축 계획 및 구조 체계에 관한 연구.” 『2018년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38권 제2호, 2018.

김훈배·이영한. “북한의 도시관리 분석: 북한의 도시계획법과 도시경영법 중심으로.” 『2019년도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9권 제1호, 2019.

박소혜. “김정은 정권의 ‘우리식 사회주의’ 의미 변화와 시사점.” 『국가안보와 전략』. 제22권 3호, 2022.

안진희. “북한 통치 수단으로서 경관의 활용 방식 연구: 『로동신문』 현지지도 보도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제104권, 2020.

이종겸·정현주. “평양시 도시미화 담론과 상징경관 연구: 김정일, 김정은 시기의 비교.”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25권 2호, 2022.

정일영. “북한에서 전시(展示)적 도시의 건설과 한계에 관한 연구: 김정은 시대의 유희오락시설 건설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19권 1호, 2016.

최천운. “평양시 살림집 건설정책에 관한 연구.” 『부동산법학』. 제25집 제2호, 2021.

3. 기타 자료

『로동신문』.

『삼흥 3.0판 다국어대사전』. 평양: 삼일포정보센터, 2004.

『조선건축』. 평양: 공업출판사, 2014~2019.

『조선중앙통신』.

A Study on North Korea's Governance Strategy through the Discourse of City Construction in the Era of Kim Jong Un

Park, Sohy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North Korea's governance strategy through the discourse of city construction in the era of Kim Jong Un. The discourse of city construction in the era of Kim Jong Un is formed as a direct expression of the national goals of building a "socialist power" and a "socialist civilization," and it is composed of concrete substance.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ance strategy, as seen through the discourse of city construction in the era of Kim Jong Un,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key themes: "science and technology," "future," and "environment." Firstly, it emphasizes "science and technology" and utilizes slogans such as "self-reliance and self-rehabilitation" and "bringing up all the people a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talents" in governance. Secondly, it highlights "future" and emphasizes the need to catch up with the "civilized time" by speeding up, symbolizing youth and leadership as the embodiment of the future. Thirdly, "environment," which represents aesthetics and international status, becomes a visual strategy discourse that concretizes the concept of a "civilized powerful nation."

The era of Kim Jong Un began with the continuation of the construction discourse of the former leaders, but developed a differentiated governance strategy for the Kim Jong Un regime by unfolding the discourse of construction towards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of Korean-style socialism" with modifiers such as "new Juche of the 100s," "new Pyongyang speed," and "new era of grand construction."

Key Words: Kim Jong Un, Pyongyang, Governance Strategy, Socialist Power, Socialist Civilization, Korean-style Socialism